

서민 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I)
— 경북 금오산 주변지역의 민속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이은주 · 홍나영* · 임재영**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시립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의생활학과
**한성대학교 이공대학 의류직물학과

A Study of Folk Costume Culture (I)
— Field Research Around The Mt. Kumo Area —

Eun Joo Lee, Na Young Hong* · Jae Young 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Univ.,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 Sung Univ.

(1994. 9. 12 접수)

Abstract

These days the Korean costume becomes the formal dress to be worn on particular occasions. The Westernization of life style, including dress, has made the costume of wearing traditional dress disappear from Korean's everyday life.

This study is launched to investigate the precious textiles and materials of the past before they vanish; this study deals with the materials of folk costume in the early 20th century, preceding Westernization. The research method adopted in the study was interviews of fifth-five elderly persons living around the Mt. Kumo area in Gyungbuk province.

The result was that costume culture in that area was poor because people living in the area were economically less well off due to meager agricultural products. There was no variety in the style of costumes to be worn for various occasions. It was also noteworthy that because of no diversification in naming, only one representative word was used to name several types of costumes. On the other hand, it was discovered that the people in the Mt. Kumo area had religious aspirations stemming from their folk beliefs concerning costumes. They also had an attitude of saving money despite poor economic conditions.

I. 서 론

1. 조사 내용과 목적

우리 조상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의 생활 문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들은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서 현재라도 남아있는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 정리하고 보존, 계승시킬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행해지게 된 금오산 주변지역의 현장조사는 1900년대 전반기까지의 서민 생활 속에 잔존해 있었던 의생활 민속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조사대상지역의 현재 일상적인 의생활 모습에서는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이 되어 버렸다. 조사 당시 조사 대상자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 거의 한복은 아니었다. 100세에 가까우신 할머니 조차도 쪽머리가 아닌 짧은 컷트 모숨이었고 입고 계신 옷들 역시 서구형 반코트나 스웨터, 조끼, 긴 월남치마 등이었다. 여름철에도 한복보다는 화학섬유의 블라우스에 고무줄 등으로 허리부분을 처리한 치마를 입는다고 한다. 한복은 간혹 집안 행사나 기타 모임이 있을 때나 입는다는 것으로 보아 노인들에게서도 도외시되어 가는 한복을 젊은이들에게서 재확대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의생활의 서구화 양상은 유독 금오산 주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기타 의생활과 관련된 민속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상 귀중한 자료들이 소멸되어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기 전에 조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에, 이번 조사는 전통문화의 이해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촌로들의 기억에 기초하여 수합한 전통의생활에 대한 민속적 자료를 일상복, 외출복, 작업복으로 쓰였던 일반복식과 우장(雨裝), 의례복, 전통직물생산으로 대별하여 정리하고자 하며 의례복과 전통직물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발표하고자 한다.

2.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금오산 주변지역의 의생활 관련 민속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 1) 제 1차 조사 : 1993년 12월 21일~23일 (3일간)
- 2) 제 2차 조사 : 1994년 2월 3일~6일 (4일간)
- 3) 제 3차 조사 : 1994년 4월 14일~16일 (3일간)

조사방법은 그 마을의 이장, 반장들을 소개받거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그룹으로 면담하여,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는 한편 녹음도 하였다. 노인들의 방언이나 발음이나 부정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조사자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의복의 명칭 중 방언을 고딕체로 표기하였다.

3.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상담자 중에 남자 경로당에서는 주로 대담만 하였을 뿐 상담대상자의 일반상황을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표는 여자 상담대상자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상담대상자의 연령은 85%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가업은 76%가 농업으로 대다수(94.5%)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분들이었다. 이들의 가족 상황은 대가족이 41.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신(27.3%)이 많은데 이 노인들 중 혼자서 구호양육에 의존하는 약 11%의 안노인들이 있었다.

4. 조사대상지역과 지역적 특징

금오산 주변에 접해 있는 마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1) 동북방면 : 구미시 수점동
- 2) 서쪽방면 : 금릉군 남면
 - (1) 부상 1리
 - (2) 오봉 2리(갈항, 牛場(쇠마당), 三家村)
- 3) 남쪽방면 : 칠곡군 북삼면
 - (1) 월명 1리(설밭)
 - (2) 송오 1동(태평리)
 - (3) 송오 2동(금곡) : 송오리의 중심 마을로서 기독교인들이 많다.
 - (4) 송오 3동(송산) : 금오산을 일명 남송산이라고 하는데 마을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 4) 성내마을

〈표 1〉 상담대상자의 일반상항(총 응답자 : 55명)

일반상항	항 목	빈도, (%)
연 령	21~30세	0(0.0)
	31~40세	3(5.5)
	41~50세	1(1.8)
	51~60세	4(7.3)
	61세 이상	47(85.4)
학 령	무	40(72.7)
	국 중	9(16.4)
	고 졸	1(1.8)
	전문대이상	1(1.8)
	기 타	0(0.0)
평균가계수 입	30만원 미만	6(10.9)
	31~ 60만원	9(16.4)
	61~ 90만원	11(20.0)
	91~100만원	12(21.8)
	101~130만원	5(9.1)
	131~160만원	8(14.5)
161만원 이상	4(7.3)	
주거형태	아 파 트	0(0.0)
	양 욕	7(12.7)
	반 양 욕	4(7.3)
	한 욕	44(80.0)
가족사항	기 타	0(0.0)
	무자녀 신희부부	1(1.8)
	부양자녀를 거느린 부부	7(12.7)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	9(16.4)
	독 신	15(27.3)
	대가족(직계자녀와 부모)	23(41.8)
직 업	기 타	0(0.0)
	공 무 원	2(3.6)
	교 사	0(0.0)
	경영/사무직	0(0.0)
	회 사 원	4(7.3)
	기술/작업직	0(0.0)
	판매/서비스직	0(0.0)
	상/공 자영업자	0(0.0)
	전문/자유직	0(0.0)
	농 업	42(76.4)
기 타	7(12.7)	
본 인 의 고 향	원 주 민	52(94.5)
	이주민(10년 이내)	3(5.5)

II. 일반복식

전통의생활에 대한 수합자료를 통해 볼 때 조사지역 내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지식과 경험에 있어 개인적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조사대상자의 자라온 경제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입고 있는 옷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치마는 뿔남치마 스타일의 길거나 또는 발목 위의 약간 짧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작업 시에는 편한 몸매형의 바지가 애용되고 있었다. 상의에는 블라우스, 티 셔츠, 스웨터, 엉덩이를 덮는 긴 유형의 조끼, 코트 등이 애용되었고 그 외에 화려한 색상으로 프린트된 화학섬유의 스포지 버전, 인조 비닐로 만들어진 방한화 등이 착용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인 대상의 획일적인 기성품을 착용하고 있어서 기성복 대량 생산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의 의생활에 대한 질문에 '옷이 없어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어' 하시는 말씀은 서민의 의생활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었겠지만 평상시에 입을 옷도 없는데 외출복이라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이러한 궁핍한 생활 속에서 일상복과 외출복에는 수복(首服)과 포류(袍類)를 제외한다면 특별한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지닌 옷가지에서 단지 깨끗하게 손질한 것이나 비교적 근래에 새로이 장만한 것이 외출복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작업복도 달리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 중 오래되어 낡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철따라 옷갈아 입음도 계절에 맞춘다기 보다는 피부로 느껴지는 추위와 더위에 맞추어 마련하였다. 여름에는 주로 삼베, 겨울에는 명배(무명)를 사용했고 아주 추울 때는 소캐(솜)를 두어 햅저고리(햅저고리, 즉 솜저고리), 햅바지(햅바지, 즉 솜바지) 등을 해입었다. 없는 사람들은 보통 옷을 여러겹 끼어 입어서 추위를 피했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명주옷을 입기도 했지만 명주옷은 귀한 것이어서 간혹 어린이나 집안 어른의 명절복으로 사용되었다.

1. 여성복

1) 치매, 채매(치마)

조사 중 들려주신 노래 속에 ‘이 채매가 이래 뵈도...’라는 노래가사가 있다. 여기서 ‘채매’란 여자임을 말한다. 즉 여자의 대명사이다. 그만큼 여성의 옷으로는 대표적인 것이다.

(1) 보통 치마

· 치마명칭 : 현재 입혀지는 한복 치마 형태이다. 꼬리치매 또는 걷는 치매, 거들치매, 보통치매 큰치매, 옷치매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이 치마는 주로 외출용으로 입혀졌다.

· 치마꼬리 방향 : 과거 이 지역에서는 왼쪽으로 여민 사람들도 더러 있긴 했지만²⁾ 민가에서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여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래에는 옷만들어 주는 집에서 주문자가 특별히 오른쪽을 주문하지 않는 한, 모두 왼쪽꼬리로 입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뀌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 구성 : 홀치마 또는 겹치마가 있었는데 본래는 홑겹이었으나 속옷이 단순해지면서 겹치마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름철 삼베나 모시 치마는 여전히 홑겹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치마폭 수는 옷감의 폭의 너비에 따라 달랐었지만 삼베 치마의 경우 7~8쪽(1쪽 37cm)이 보통이었다고 하니 250cm 전후로서 지금과 별차이가 없다. 넓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소재와 색상 : 감색이나 밤색의 주세루 치마가 유행하였다. 주세루 또는 세루는 당시의 고급직물로 인식되었고 남녀 복식에서 모두 유행하였다. 색상은 남색, 검정색, 회색, 감색 또는 밤색 등을 많이 사용했다. 포름한 검은색(반물색), 붉은색을 들었는데 염료는 주로 방물장사나 시장에서 사서 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여름에는 삼베로, 겨울에는 광목으로 겹정물 들인 큰치마를 입었다.

(2) 작업복 치마

일할 때는 꼬리치마보다 간편한 통치매(치마)를 착용하였고 색상 역시 짙은 색을 사용하였다. 일제시대 이후에는 몸배 또는 당고 쓰봉이라는 바지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2) 저고리

(1) 저고리의 종류

· 반호장 저고리(반회장 저고리) : 흰 저고리에 붉은

색이나 자주색의 회장, 남색 끝등으로 반회장하였다. 거드랑이는 빼고 했다는데 이 때의 거드랑이란 결막이를 말한다. 연로해도 남편이 있으면 남끝등 반호장 저고리를 입었다고 하는데, 자주고름에 대해 말씀은 없었지만 남편의 생존과 아들의 유무를 나타내는 자주고름과 남끝등의 상징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반호장은 1930~40년대의 유행 양식이었던 것 같다.

· 온호장저고리(온회장 저고리) : 온호장 저고리란 결막이까지 다른 색으로 장식한 삼회장 저고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반회장 보다 늦게 즉 중년 이후에 유행했다고 한다.

· 덧저고리 : 자주 입지는 않았지만 춘추용으로 외출시에는 가끔 남자 마고자와 유사한 덧저고리를 입었다.

(2) 동정

저고리의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외관상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과 같이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동정 이전에는 흰 명주단을, 또는 흰 명주에 ‘소 여어(종이 속을 넣어)’ 직접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특히 여름의 락이겹저고리에는 불박이로 불여서 사용하였다.

(3) 길이

아주 오래 전에는 ‘있는 사람 저고리는 짧고, 없는 사람 저고리는 길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유행 감각과 기능성에 있지만 특히 젊은 여성들의 저고리가 짧아서 물동이를 이고 있을 때나 일에 몰두해 있을 때 가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고 할아버님들은 회고하신다. 그러나 그후 다시 저고리 길이는 길어졌다.

(4) 소재와 색상

새댁들은 노랑이나 새파란색 등의 화려한 색상을 입고 40대의 중년이 되면 옥색 저고리를 많이 입었는데 남편을 잃은 과수댁은 소복을 하고 살았다. 옷감은 삼베, 명배(무명), 명주, 백부로(100% 나일론), 호박단, 유평, 인주(인조견) 등이 사용되었다.

3) 두루막(두루마기)

여성용 두루마기는 외부 출입이 그리 많지 않았던 여성들에게는 별로 입혀지지 않았던 것이지만 개화기에 이르러 여자들의 바깥 출입이 잦아지고 활동이 자유로워지자 여자들에게도 겹옷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 시대 이후 6·25 전후까지 여성들의 외출이 늘면서 두루마기는 여성들의 중요한 외출복으로 등장

하였다. 지금은 방한용으로만 입혀지게 되었고 그나마 양장으로 바뀌면서 특별한 날에만 입게 되었다.

4) 머리모양과 치장

전통사회에서 머리모양의 변화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와 관계가 깊었다. 개화기에 외국인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녀 총각의 구별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일화가 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남녀가 비슷하게 땅아내린 머리모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혼례를 치루게 될 때 비로소 성인의 머리모양인 쪽머리를 할 수 있었다. 쪽을 짓고 시집 온 할머님들은 시집온 후 몇 년 안에 머리모양을 바꾸어 파마를 한 경우가 있었다. 시집온 후 장에 갔다가 파마하고 오니 시어머니가 내쫓으려고 하더라는 분도 계셨다(김말단 할머니, 62세/1994년, 갈항).

머리는 열 홑에 한 번 정도 감았는데 쌀이나 보리뜨물에 감았고 머리치장은 동백기름이나 피마자 기름을 사용했는데 동백기름이 비싸서 생피마자 기름을 더 많이 사용했다. 비녀는 좀 잘 살면 은 비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백동[白銅] 비녀를 사용했다. 붉은색이나 자주색의 작은 땀기를 썼다. 또 빛에는 **열개빛**(열레빗)과 **잠빛**이 있다. **열개빛**은 발이 굵은 빛이고 **잠빛**은 훑훑해서 머리에 기생하는 이 등의 벌레를 훑는데 사용하였다.

5) 속옷

몸에 닿는 옷일수록 울이 굵어야 통풍도 잘 되고 몸에 감기지 않아 좋다고들 한다. 광목이나 **명배**(무명), 삼베, 모시 등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모시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이 사용했다. 속치마, 속바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1) 상의류

흰색의 적삼이나 속저고리, 메리야스나 **담샤스**(웅서츠)를 입었다.

적삼은 주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입었고 속저고리는 점차 간편함을 쫓아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메리야스나 담 종류의 셔츠로 바뀌어 갔다.

(2) 하의류

상의류에 비해 좀 복잡하다. 보통 '바지'라 함은 겹으로 만든 바지를 말하고 홑으로 만든 바지는 **중우**(中衣)라고 하였다. 제대로 갖추어 입는 방식은 가장 안에 다리속곳을 입고 그 위에 속속곳, 그 위에 **고쟁이**

(또는 바지), 그 위에 단속곳(또는 속치마), 걸치마를 입는 것이었지만 궁핍했던 민가에서는 다 갖추어 입기 어려워 한 가지 또는 두 서너가지로 줄여서 입는 경우가 많았다. 여름에는 **단주의**에 **다래고장주**, 그 위에 **치매**를 입고 겨울에는 **단주의**에 바지, 그 위에 치마를 입었다고 한다.

· **다리속곳, 뺨스, 사리마다**: 다리속곳은 원래 요즈음의 팬티처럼 가장 안에 있는 속옷이었다. 주로 삼베나 명베로 만들어 입었으나 그나마 입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그 후 일제시대에 뺨스, 사리마다라고 불리는 속옷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는 옥양목이나 팡당목으로 반바지 형태로 만들어서 입었다.

· **단애, 단의, 다네, 단이, 단중우, 단주우, 단주**(속속곳, 단속곳): 길고 풍성한 치마바지 형태이다. 한 쪽 가랭이가 3폭씩으로 되어 가랭이가 넓어서 그 가랭이를 들어올려 용변을 보았다. 가랭이가 넓어 '궁덩이도 막 깔 수 있어'라고 표현하는 옷이다. 가랭이가 넓어서 이것을 입고 일하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일할 때는 바지 부리에 대님을 묶는다. 단속곳에는 속곳 밑을 달면 편하다고 하는데 밑이 두꺼워 이레까지 안 갈아 입었다는 할머니들도 계셨다.

여름철에 **실창 고장중우** 입을 때면 단속곳을 입었다. 평상시에는 이것 하나만을 입기도 하고 또 단속곳²⁾ 입고 그 위에 **고장주**(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출 때에는 **고쟁이**(바지) 입고 시집을 때 입고 온 미색의 **명지** 또는 인조 단속곳 입고 그 위에 큰치마(웃치마)를 더 입었다. 근래에는 치마 밑 속옷이 더욱 단순화되면서 속곳 종류를 입는 대신 속바지와 새로 생긴 속치마를 입었다. 그 위에 치마도 홑치마 아닌 겹치마를 입게 되었다.

본래 속속곳과 단속곳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크기에 있어서 겹에 입는 단속곳이 조금 크고 바지 밑에는 속속곳, 바지 위에는 단속곳을 입도록 되어 있다³⁾. 그러나 이 곳에서는 두 속곳을 혼돈 내지는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네**란 1986년 진주·사천지방의 민속조사에 따르면 **단의**, 즉 단속곳을 말한다⁴⁾고 하며, 경남지방의 민속조사에서는 속곳 다음에 **다네**, **고장주**, 속치마를 입는다고 하여 속속곳을 지칭하기도 하였다⁵⁾. **고쟁이**나 바지 안에 입기도 하고 또는 겹에 입기도 하면서 명칭은 구별없이 **단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명칭의 미분화 내지는 혼돈 현상이라고 하겠다.

· 바지류

— 고쟁이, 고장주, 고장주의, 고장중우(고쟁이) :

고쟁이는 용변을 보기에 편하도록 앞뒤가 트여 있다. 마치 다리 두 갈래를 허리맡기로 붙여 놓은 형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뒤만 트인 것도 있다⁸⁾. 뒤가 트인 것은 연대가 있는 것이다. 다리 아래는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붕어배래 형태를 이루었다. 특별히 ‘모시 고장주의’ 또는 ‘살창고쟁이’라는 것도 입었는데, **살창고쟁이**는 ‘가시개 고장주’, ‘가우 고장주’, ‘가워 고장주’⁹⁾ 또는 ‘다래 고장주(다래고쟁이)’라고도 불렸다. 이 고쟁이는 허리에 주름으로 겹쳐질 부위에 U 모양의 구멍을 10개 이상 파서¹⁰⁾ 남은 부분만 허리에 달았다. 여름에 그 구멍으로 바람이 잘 통하여 시원했다고 한다. 독특한 형태의 지혜가 담긴 옷이다⁹⁾. 한편 시집갈 때 ‘속고장주’를 입으셨다는 분도 계셨다.

— 바지 : 고쟁이와 같은 형태, 같은 용도로 입혀진 것이지만 겹으로 만들면 바지 또는 겹바지라고 불렀다. 춘추용이나 겨울용으로 입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겨울철에 명주에 솜을 둔 겹바지를 입기도 했다. 뒤터서 끈을 앞으로 돌려 묶었다.

· 속치매(속치마) : 속치마는 개화기 이후 일제시대에 속곳 종류가 줄어들면서 등장한 옷이다. 치마 바로 아래에 입는다.

· 서답 : 생리대는 ‘서답, 가지미, 가지매, 방석, 말’이라고 불렀고 생리현상을 ‘가짐 찬다.’ 또는 ‘방석 찬다’ 또는 ‘말 탄다’고 하는데 현 옷 떨어진 거나 가제를 써서(사서)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했다. 또 새 말을 타면 오래한다고 하여 자주 생리대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잦은 임신과 출산 후의 수유 등으로 인해 서답을 사용할 기회는 적었다고 말씀하신다. 서답의 세탁은 오줌에 담구었다가 했다. 한편 며느리 보고도 늦게 까지 있을 때는 서낭당에 던졌다. 서낭당에 던지면 빨리 폐경이 된다는 속신이 있었다고 한다.

· 헐띠(허리띠) : 치마와 저고리 사이에 두르는 넓은 띠로 여름에는 삼베로 앞을 가리고 겨울에는 명베(무명)에 솜넣은 것을 만들거나 누비로 긴 직사각형의 끈 형태로 만들었다. 젊은 아낙들은 짧은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드러나는 가슴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 등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보온용으로 노인들이 사용했다.

2. 남성복

1) 기본복식

(1) 상의류

· 저고리 : 주로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계절별로 봄, 가을에는 명베(무명) 겹저고리, 여름에는 삼베 적삼을 입었는데 더울 때는 짧은 팔의 적삼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 삼베로 만든 소매 없는 웃옷도 착용하였다. 짧은 팔의 적삼은 주머니가 달리고 V자형의 네크라인에 단추로 앞을 여미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며, 서양복의 양식을 도입한 개량된 의복이다.

· 죽삼, 등거리 : 적삼 속에 입어 옷과 몸이 땀으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여름옷이다. 죽 대나무로 만든 ‘죽삼’이 있었고 등나무나 칩으로 만든 ‘등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산에서 ‘어름덤불’ 또는 ‘탱대미 덩쿨(탱대미 덩쿨)¹⁰⁾’이라는 것을 거두어서 잎을 훑어 엮은 등거리를 죽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삼은 고급이기 때문에 민가에서는 입기 어려운 옷이었고 등거리조차도 ‘조매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었다.

· 토시 : 주로 남성들이 사용했다. 여름용으로 대나무 토시가 있었고 겨울용으로는 솜토시가 있었다. 여름에는 옷 소매 속으로 넣어 땀이 체이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 저고리 소매 위에 끼었다.

(2) 바지류

흰바지 또는 회색바지도 많이 입었다. 봄과 가을에는 명비(무명)겹바지, 겨울에는 헐(합)바지, 여름에는 베주우(삼베중우)를 입는다. 주우 또는 중우(중의)는 통칭 바지라고도 불렸지만 바지와 구별할 때는 흘겹으로 된 것을 중우라고 하였다.

2) 포류(袍類)

(1) 두루막(두루마기)

일상 외출용 옷으로 착용한 겉옷이다. 국말에 널리 입혀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한복 일습의 하나로 입혀지는 중요한 남성복이다.

(2) 도복(도포)

도복 뒤에는 ‘덧자락’이 한장 달려 있고 소매는 콘소매로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입었다. 제사용이나 수의용으로 또는 혼례에 사용되었다¹¹⁾.

그 외 행이, 행의(行衣)라는 옷도 있었는데 그 형태는 정확치 않지만 단지 두루막이나 도복과 유사한 걸

옷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속옷

‘없어서 속이 다보이게 입었어’ 하시는 할머니의 말 씀처럼, 없어서 많은 옷을 격식 차려 입지는 못했다. 특히 남성들이 속옷을 갖추지 않고 입어 여름에 배잠 뱅이를 입으면 신체의 윤곽이 훤히 비쳤다고 한다.

3. 어린이 옷

1) 저고리

(1) 이란저고리

아이가 태어나면 배냇저고리 즉 ‘이란저고리’라는 것을 입혔는데, 칠 일 안에 입히기 때문에 ‘이레 안 저고리’ 그래서 ‘이란 저고리’라고 한다. 이란 저고리는 돌 때까지 입힌다고 하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아이가 커서 몸에 맞지 않을 때까지 입히는 것 같다. 한편 깃은 없게 만들며 끈은 몇가닥의 실을 꼬아 만드는데 색실로 장식을 하기도 하며 깃은 돌 지나야 달았다고 한다. 한편 배나 광목, 담(용) 등을 사서 새로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지만 집안 어른의 헌 옷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어른의 헌 옷을 이용하는 데는 장수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이란저고리는 성장하여 과거를 때 가지고 가면 좋다는 속신이 있어서 지금도 시험이나 군대갈 때 가지고 가기 위해 잘 간수해 두는 집도 있다고 한다.

(2) 저고리

돌이 지나면 어른의 저고리와 같은 형태의 저고리를 입기 시작했고 고름은 둘째라 하여 가슴을 한 번 둘러서 땀 수 있을 만큼 긴 것을 달아 주었다. 3~4살까지 들렀다.

2) 바지류

아주 어릴 적에는 아랫도리를 벗겨 두었다. 이란 저고리가 길어서 엉덩이를 덮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우고는 벗겨준다. 조금 성장한 후에는 고장바지, **풍채**바지(풍차바지)를 입힌다. 어린 아이들의 바지로서 뒤자락이 여성들의 속속곳처럼 갈라져 용변을 보기가 편리하도록 만든 것인데 박태순 할머니(71세/1994년, 설밭)의 말씀에 따르면 **자락**(자락)이 펼렁거린다고 하여 ‘**풍채**(풍차)바지’라고 한다고 한다. 대여섯 살까지 입힌다.

4. 기타

1) 수복(首服)

(1) 여성용

· **치네**(친의) : 두루마기 길이로 소매없이 동정을 단 형태로 지금 할머니들의 전대(前代)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여성의 얼굴 가림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있는 집안의 여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일하기 바쁜 서민 여성들에게는 필요치 않았다. 오히려 겨울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한 모자가 더욱 요긴한 것이었다.

· **풍뎡이**(=풍디이) : ‘할매들 풍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대까지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할매들 춤으면 쓰는 모자’라고도 한다.

· **히양, 희염, 휘염**(휘향) : 남바위, 풍차 등의 머리쓰개를 모두 **히양**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수건류, 목도리류가 있었다.

(2) 남성용

· **망건**(망건)과 **갓** : 망건은 이마에 두르는 모발정리용 수복이었지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었고 갓 역시 계층에 따라 형태상의 차이가 있었다. 즉 채양이 넓은 것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었고 작은 채양의 것은 민가에서 사용되었다.

· **탕관**(탕건) : 갓의 반침모자로도 쓰이고 집에서 쓰는 편모로도 쓰였다.

· **패랭이**

· **삿갓** : 삿갓은 농부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쓰는 크기가 더 큰 갓으로 테두리가 평평하다.

· **방갓** : 삿갓보다는 적은 갓으로 상주가 외출을 할 때 썼다.

· **갈모** : 비를 때 갓이 젖으면 오그라들기 때문에 비 맞지 말라고 갈모를 썼다. 보통 종이 우산처럼 대살에 油紙를 붙여 만들어 두루마기 소매 속에 부채처럼 접어 넣어 두었다가 펴서 사용하였다.

· **히양**(휘향) : 남자 방한모로서 망건에 탕건, 휘향을 쓰고 그 위에 갓을 썼다. 여름에 혼례를 하더라도 혼례 때에 이 휘향을 사모 아래에 썼다는 곳도 있었다(정원갑 할아버지, 76세/1994년, 설밭).

2) 족의(足衣)

(1) 버선

삼승버선, 명버선, 광목버선, 옥양목버선 등이 있었는데 광목 버선은 울이 굵고, 옥양목 버선은 울이 잘고 희었다. '무색버선¹²⁾은 상 것들이 신고 좀 나은 사람들은 흰 색을 신었다.'(박옥대 할머니, 66세/1994년, 송오 2리)고 하는 것처럼 버선에 있어서의 흰색은 유한계급의 상징이었다. 흰 색은 세탁이 어렵고 색이 있는 것이 때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짚신

벚꽃은 타작을 하면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따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불려 두었다가 건져서 떡밀로 두드려 부드럽게 한 후, 저녁이나 비와서 들에 나갈 수 없는 날 짚신을 삼는다. 서민들이 신었던 짚신은 보통 '네 날 짚신'이라는 것인데 말바닥에 심이 되는 날이 4가닥이기 때문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하루 저녁에 보통 두 켤레씩 만들 수 있는데 열켤레씩 뒤꿈치를 포개서 엮어 처마 밑에 걸어 두었다가 식구마다 신는다. 보통 농사일을 할 때 짚신의 수명은 삼일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짚신 떨어진 것은 다시 모아서 퇴비를 만들어 농사에 이용했다고 한다.

조사 중에 얻은 이야기 중 짚신과 관련된 흥미로운 것이 있어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아들이 짚신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파는데 아버지의 짚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의 짚신은 인기가 없어서 항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거블거블'이라는 한마디였다(정원갑 할아버지, 76세/1994년, 설밭)'고 한다. 즉 짚을 매끈하게 다듬어 보푸라기를 없애라는 말씀이었다고 한다. 역시 짚신도 고운 것이 좋긴 좋았던 모양이다.

(3) 밧신·미신(미투리)

삼으로 만든 고운 신발을 밧신 또는 미신이라고 하는데 짚신이 일반적으로 네날(4날)인 것에 비해 미신은 '육날(6날)'이 보편적이었다. '아장아장 걷는 첩을 육날이 미투리 따라가며 신겨준다...(신말한 할머니, 69세/1994년, 송오 3동)'라는 노래 속에서 첩에게 마음을 빼긴 남편을 타하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 등장하는 육날이 미투리는 고급 신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나 새색시들은 색을 화려하게

넣은 미투리의 일종인 꽃다지 또는 꽃신이라고 불리는 신을 신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1년에 두 번, 즉 설날과 8월(추석)에 항상 만들어 주셨다는 분도 계셨다.

(4) 나막개(나막신)

비오는 날 신는 나무로 깎아 굽이 높게 만든 신발이다.

(5) 갓신

가족으로 만든 고무신과 유사한 형태의 신인데 있는 사람들이 신었다.

(6) 고무신

일정시대에 동(洞)에 한 두 켤레 배급받아서 나누어 신었으니 그 시절에 대단히 귀한 신이었다. 새색시가 처음 시댁에 오면 선물로 고무신을 선물받았다고 한다. 특히 여자의 흰 고무신은 멋쟁이들이 신는 것으로 검정 고무신보다 더 귀하고 비쌌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값싼 검정 고무신이 주로 신겨졌다. 아이들은 입학 때나 설빔으로 고무신을 사주는 것이 큰 호사 중의 하나였다.

그 외 고무로 만든 구두도 후에 나왔고 가족으로 된 구두는 그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만이 신을 수 있었다. 슬리퍼형의 '땀땀이'도 있었다.

3) 기타 장신구

(1) 여자

염낭이나 귀재비(귀주머니)를 빨강, 청색, 녹색으로 만들어 찼다. 장신구로는 은반지가 최고였다. 외출시에는 손가락 굵기의 은가락지를 옷고름에 노리개처럼 끼어 달고 다녔다. 비너도 은비너가 최고요, 없으면 백통비너였다.

(2) 남자

담배쌈지, 주머니, 안경 등이 좋은 장신구였다. 담배쌈지는 세 번 접어서 허리에 찼고 안경이 개화기에 많이 보급된 후에는 안경통을 허리끈에 차고 다니기도 했다.

Ⅲ. 우 장

우장이란 비를 맞지 않기 위한 옷이다. 특히 장마철 등에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된다. 우장에는 '도리(도롱이)'와 '삿갓'이 있다. 어깨에 걸치는 도리는 벼짚이나 보리짚으로 만드는 짚도리와 또는 '떠풀'로 만든 띠도

리가 있다. 새끼로 엮거나 삼으로 엮어 만든다.

1. 짚도리(짚도롱이)

짚도리는 '벼짚도리'와 '보리짚도리'가 있다. 짚은 물이 쉽게 스며들기 때문에 비에 젖으면 무거워진다. '물먹으면 한 짐'이라고 한다. 그러나 따뜻했다고 한다. 보리짚도리보다는 벼짚도리가 좀 나은 편인데 '보리짚은 다 젖고, 쌀짚도리는 덜 젖고, 띠풀도리는 가벼워서 좋다.'고 한다.

2. 띠도리(띠도롱이)

띠도리는 보드랍고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가벼워 좋다고 하는데 띠풀이란 잎이 넓죽넓죽하고 어른 키 한 키 정도로 자라는 풀로서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짚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짚신이나 기타 용품을 만들기 위해 집 주변에 간추려 두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반면, 띠풀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뜯어 모아야 했기 때문에 큰 일거리였다.

한편 띠도리는 아기의 장수를 빌기 위한 한 도구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가 갓나면 명이 길라고 별거벗겨 띠도리에다 놓혀 놓고 씻기는 습속도 있었다(김웅년 할머니, 64세/1994년, 송오2동). 경남 함양 지방에서도 애기를 낳을 때면 반드시 이 띠자리를 깔고 출산했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띠자리를 깔고 낳으면 애기에게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속신이 있었다. 한편 전북 남원에서도 띠로 배석자리를 만들었다. 제사 등에 사용하며, 산모가 애기를 가지면 반드시 남자 어른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가장 정결한 장소에서 난 띠를 한 짐 해와 손질해 두었다가 애기가 태어나면 그 띠자리 위에서 애기의 무병장수를 빌고, 애기가 다 클때까지 다락에 세워두고 시시때때로 삼신에게 빌 때마다 꺼내 깔았다고 한다¹³⁾. 이로 보아 '띠'와 관련한 아기의 무병장수에 관련된 어떠한 신앙이 널리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금오산 주변지역의 의생활민속을 살펴 보았다. 전반적인 의생활의 내용들을 정리하기에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몇가지의 특징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한다.

반농사반산촌의 여유가 없는 민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오산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은 그리 운택한 편은 아니었다. 이러한 환경은 의식주 문화의 부족 내지는 빈곤과도 직결된다. 전통의생활 문화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입증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전통의생활에 관한 기억은 이미 많은 부분이 바래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기억의 양도 그렇지만 이는 정도의 수준에도 개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지적 수준과 함께 경제적 수준이 개인차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전통복식면에서는 우선 의복 종류가 그리 다양하지 못했고 엄격한 복식규범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는 조사대상자들의 기억 수준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의복 종류의 다양화라든가 복식 규범의 발달이라든가 하는 의복 문화가 번창할 수 있다는 기본원리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표적인 하나의 의복 명칭으로 여러 의복을 지칭하는 명칭의 미분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복 자체가 없었던 것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옷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몇가지의 특징이 유독 금오산 주변지역만의 특징이 아니라 없이 살았던 전반적인 서민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상이기도 하다고 여겨진다. 본 조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도 있는 바,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잊혀져 가고 있는 서민의 전통의생활의 면모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의복 방언적 명칭이나 형태, 착용법 등을 포함한 복식문화의 비교민속학적 자료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조상들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 작은 지혜라든가 절약하면서 사는 생활자세 등이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미신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속신 속에 내포된 소박한 인간미, 어려운 삶 속에서의 잃지 않은 위트 등이 우리 후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멋을 다시 한 번 음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주 및 참고문헌

- 1) 1986년의 경상도 진주·사천지방의 민속조사에서는 "양반은 오른꼬리, 상사람은 왼꼬리로 입었다."고 하였다.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책,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316, 1986
- 2) '속속곳'을 말하는 듯 하다.
- 3)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496-498, 1975.
- 4) 한국민속종합보고서, 314.
- 5) 홍나영, 경남지방의 혼례복에 관한 민속조사,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18집, 88, 1993.
- 6) 진주·사천지방에서는 앞뒤가 다 트인 바지를 '휘항중우'라고 부르고, 앞쪽은 막히고 뒤만 터진 것은 '풍차중우'라 불렀으며, 후자는 1910년대 경에 생긴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민속종합보고서, 제17책, 314, 1986.
- 7) 가시개, 가우는 '가위'의 경상도 사투리이다. 바람 잘 통해서 허리가 시원하라고 허리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어 만든 속바지의 일종으로, 안동지방에서는 '살창바지', 또는 '광창바지'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 8) 잘라 낸 부위는 울이 풀리지 않도록 김집질했다.
- 9) 살창이란 좁은 나무나 쇠창살로 사이를 떼어 나란히 박아서 만든 창문으로 바지 윗부분에 구멍을 내어 통기가 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안동지방에도 있으며 '살창고장주의', '다리고장'이라고도 한다. 전제서, 278.
- 10) 땡땡이 덩굴은 경남에서는 장데미, 장드레미라고 하며 제주도에서는 정당, 정동, 정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병선, 풀문화, 대원사, 75, 1991.
- 11) 다른 지방에서도 도포는 흔히 도복이라 불리우며, 제사·수의용 외에 혼례복으로 쓰였다. 한국민속종합 보고서, 322.
- 12) '무색'이란 물들인 것이란 뜻이다.
- 13) 인병선, 36-37.